

덕민 스님 (불교사 승가대학장)
길거리 푸른버들
쟁그린 눈썹 물들어네
8면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hyunbulnews.com

금주의 법구-〈사가라위경〉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우리네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불멸의 곳으로 가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5일) · 주간

제982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생명존중 없는 살처분, 법적 규제 필요

조계종 교육 아사리 스님들 'AI와 살처분' 주제 포럼

예방을 이유로 진행되는 대량 살처분과 방역을 기존 법령이 국민의식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 역시 생명윤리 관련 기구를 구성해 이 같은 사안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은 2월 28일 총무회 2중 국제회의장에서 '조류독감(이하 AI)과 살처분'을 주제로 교육 아사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교육 아사리 원영 스님(사진, 계율·불교윤리분야)은 현재 정부의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외국 비교, 대안에 대해 분석했다.

원영 스님은 "현재 한국의 가축 전염병의 방역 실상과 제도는 부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2~3년 주기로 AI와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 가금류나 소, 돼지 등을 살처분했다. 올해에도 2월 25일 현재 39일간 565만3000마리가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살처분 과정이다. 원영 스님은 "생명존중의 태도가 일체 배제된 원칙 없고 불합리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우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를 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도 오염지역 500m 내에서의 선택적 살처분을

통해 생명의 죽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축 전염병과 방역, 살처분 관련 법령들이 방대하다. 한국은 6개 관련 법령이 총 96페이지(A4 기준)인 반면 일본은 8개 관계법령에 총 277페이지에 달한다. 내용 역시 매우 세밀하고 까다롭게 기준돼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한국은 AI의 발병 환경 등을 고려 않고 주변

법적 기준없이 생매장

의사처리 후 처분해

법령 분량도 확연한 차이

EU도 해당 농가만 처분

"자문 역할 살처분협의회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해야"

불교계 생명위원회 구성 및

승·재가 생명윤리교육 필요

3km의 건강한 가축들까지 모두 살처분하고 있으며, 그 결정도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존한다"면서 "심지어 공익을 위해 축산주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만 보상에 대한 규정도 없거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원영 스님은 정책적 대안으로 예방, 방역 등에 관한 정책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예방, 방역, 보상 등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행 정책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살처분 시행여부 및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에는 가축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명윤리학자, 종교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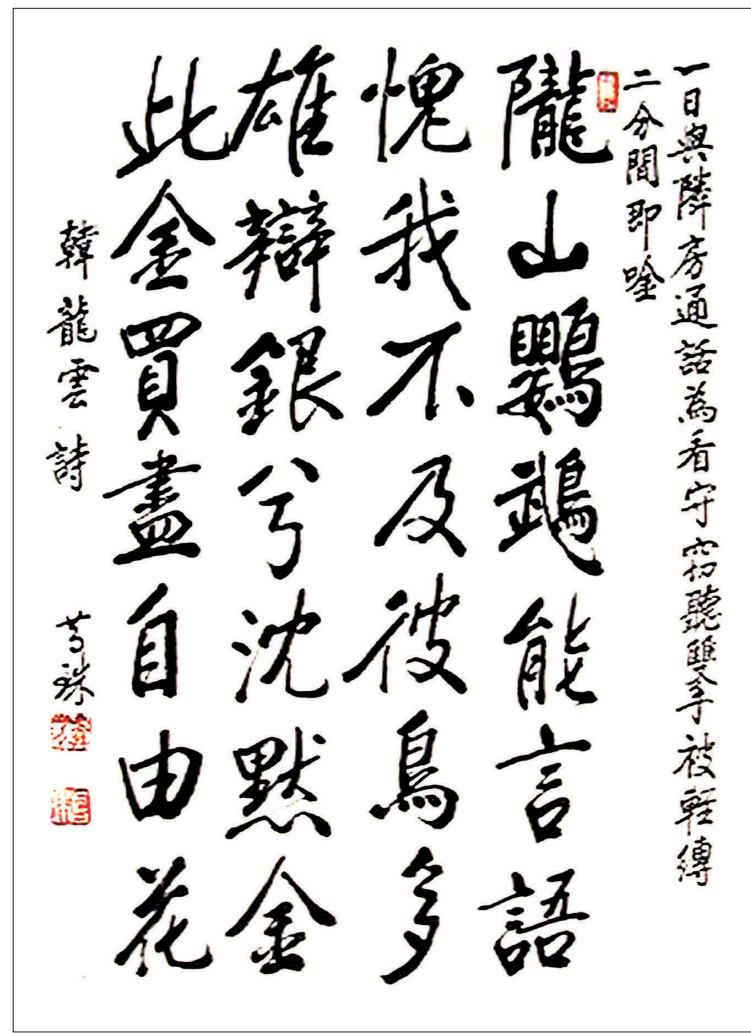
또한 고병원성AI 확진이 없는 한 살처분 대상 적용하지 않을 것과 공장식 밀집사육 개선, 생매장 등 살처분 방식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살처분 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영 스님은 총무원 산하기구로 '불교생명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사회적 대응에 나갈 것과 생명윤리에 대한 승가와 신도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교육 아사리 벽공 스님(계율 분야)은 육식 자체 캠페인을 펼칠 것을 방안으로 내놨다. 스님은 "동물보호협회 등과 연계해 종단 차원으로 살처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신도 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다 죽는지 실상을 알게 해 육식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총무원은 교육 아사리 포럼의 결과를 제안서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제단체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다시 읽는 만해 스님 옥중詩 율해도 어김없이 3.1절이 돌아왔다.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 만해 스님은 옥고를 치렀고 옥중에서 몇 편의 한시를 남겼다. 위 유묵은 '봉산의 맹무새'라는 제목의 만해 스님의 한시를 석주 스님이 쓴 것이다. 이 시는 일제 치하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고 '침묵이 금'이라면 침묵으로 자유를 사고 싶다는 자조가 담겨 있다. 남한산성 만해 기념관은 오는 3월 30일까지 '한용운의 옥중 한시'를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관련 기사 20면> 글=신종일 기자

3.1절 맞아 독립운동가 추모

용성·만해 스님 추모법회·사업 잇달아

제95주년 3·1절을 불교계 항일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됐다.

(사)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훈신히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도회는 3월 1일 죽림정사에서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해로서 5월 29일 학술심포지엄도 계획돼 있으며, 탄신일인 6월 5일에는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35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했으며,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만해포럼을 결성해 매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안성 도파안사는 1일 대웅전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를 초청해 '3·1 독립만세운동과 불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등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는 교내 법당에서 용성스님과 만해, 운허, 태허스님을 추모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선지식 동문회는 3월1일 망우리공원을 찾아 만해스님의 묘역을 참배한다. 선지식 동문회는 42년째 3·1절에 만해스님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28일 기미독립선언문 낭독과 특별강연, 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 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신종일 기자

"나누고 함께 하면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 발표... 점등식 등 일정 확정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공식 봉축 표어와 연등회 일정이 확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승, 봉축위)는 "오는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표어로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를 선정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선정 이유로 봉축위는 "동체대비의 사회적 실천과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자"며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지는 이때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봉축위는 2014 연등회 일정도 공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는 4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점등식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어울림마당 등 전시는 오는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며, 수만 연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26일 오후 7



불기 2558년 연등회 포스터.

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어 종각사거리에서는 제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희망한마당이 열린다.

4월 27일 정오부터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리며, 오후 7시부터는 흥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 진행된다. 전통 등 전시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신종일 기자

나로부터의 시작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제2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2014년 3월 22일(토)~6월 7일(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3:30~8:30, 한미음선원 *07. 동강점, 동강점일정은 오후 2시 부터 시작

문의 TEL (031)471-6926~7 (매주 화요일 휴무)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982호 INDEX

연등기회	5	종합	2·3
탐진치 줄이기- 행복으로 가는 길		삼선승가대, 불학대학원으로 전환 전국 출가열반주간 정진 '다채'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마애불이 있는 사찰-삼천사	

정부·종교계 '과세' 놓고 장고 중

26일 간담회... 기재부 종교인 항목 추가 밝혀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부와 종교계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나성립)는 2월 26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인 간담회'를 열고 과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

에 대한 기존 방침을 대폭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소득의 사례금 항목에 포함하려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정의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에서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변경했다. 과세 범위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기로 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27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각 종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과세 방침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 샵 단독입점

촛대 (대)

촛대 (중)

촛대 (소)

향로

향통

다기

품명	규격 (가로/지름)	판매가
촛대	사자 (大)	51cm×21cm 750,000원
	코끼리 (中)	41cm×21cm 700,000원
	거북이 (小)	35cm×21cm 650,000원
향로	거북 (大)	28.5cm×34cm 1,040,000원
	용 (中) ㉠	21.5cm×29cm 760,000원
	두 (中) ㉡	18.5cm×23cm 560,000원
다기	대 (大)	26cm×20cm 370,000원
	중 (中) ㉠	22cm×14cm 260,000원
	소 (小) ㉡	20cm×13cm 240,000원
향통	원형 (大)	15.5cm×7.5cm 100,000원
	(小)	11.7cm×5cm 80,000원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